

민주 486 '세대정치' 실험 물거품

최재성 사퇴 거부... '486 단일화' 결렬 당권구도 주류-비주류 경쟁 더욱 가열

민주당의 10.3 전당대회에 출마했던 486(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 주자들의 단일화가 끝내 불발됐다. 민주당 486 그룹이 간접적으로 확보한 컷-오프 성적을 토대로 이인영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했지만 최재성 후보가 이를 거부하고 완주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청정치 청산' 등 '40대 깃발론'을 내걸고 단일후보를 배출, 전대를 통해 새로운 세대정치의 위력을 발휘하겠다는 486 주자들의 구호도 빛이 바래게 됐다.

15일 최재성 의원은 대구 JS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대에서 완주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잘 푸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며 "저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화살이 오더라도 완주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바람직한 상황을 맞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목적과 방법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후보 단일화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라고 후보단일화 거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당내 486그룹은 지난 13일 486 단일후보로 이인영 후보를 추대했으나 최 후보가 승복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전제 조건을 충족, 장교에 들어가면서 진통이 계속됐다. 최 후보의 단일화 거부 입장에 대해 486그룹의 대변인격인 우상호 전 의원은 "결과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는데 대해 대단히 가슴 아프고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후보 단일화의 실패는 이인영, 최

재성, 백원우 등 486 주자 3명 모두에 상을 뒤집고 컷-오프(예비경선)를 통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어느 정도 예고돼왔다.

결국 486 그룹 내부의 파워게임과 주류와 비주류의 셈법 등이 뒤엉키며 단일화는 무산됐으며 중도 사퇴한 백원우 후보를 제외하고 이인영, 최재성 후보 2명이 각각 약진 양상으로 전당대회 레이스에 임하게 됐다.

이에 대해 당내에서는 최재성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장, '하청정치 청산'을 주장했던 후보가 오히려 하청정치, 계파 정치에 얽매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인 2표제의 특성상, 최 후보가 구당권파인 정세균 대표와 연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인영 후보도 '반쪽 단일 후보'에 그치면서 후보단일화 불발에 따른 유탄을 맞게 됐다.

특히, 486 주자들의 후보단일화 불발로 당권 경쟁 구도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예상된다.

지도부 6자리(당 대표+최고위원 5 자리)를 놓고 8명이 맞붙게 돼 1~2명의 낙마가 불가피해지면서 자파 인사의 탈락을 막으려는 주류-비주류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일단 주류 측의 정세균 전 대표는 직계 인사인 최 의원과, 이 전 의원의 경우 주류 일부와 손학규 정동영 상임고문 등과 연합할 개연성이 각각 점쳐진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나란히 입장하는 최재성·이인영 후보

민주당 전당대회 완주를 선언한 최재성 후보가 15일 오후 대구 JS호텔에서 열린 민주당 경상북도당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이인영 후보와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친이-친박 계파벽 허무나

박근혜, 친이계 의원 오찬 이재오, 여의포럼에 손짓

한나라당 내 친이(친이명박)-친박(친박근혜) 간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난달 21일 회동 후 계파 벽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수 의원들의 지적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 강승규·김영우·조해진 의원 등 친이계 핵심 의원 3명, 친박계 의원 2명과 오찬을 함께했다. 나아가 14일에는 2년 만에 당 소속 여성의원 15명과 화기어린 분위기에서 오찬을 나눴다. 여성의원

대다수는 친이계였다.

이재오 특임장관도 친박 의원들의 모임인 여의포럼에 손짓을 보냈다. 여의포럼 회원들에게 식사를 제안, 오는 28일 만나기로 한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18대 총선 공천에서 친박 의원들을 낙선시킨 배후라는 의심을 받아온 만큼 그간의 오해를 풀고 화합을 꾀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그는 지난주 친박의 구상찬·김영선·이해훈 의원과 오찬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라는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지난 7월말 당 지도부의 계파모임 해체권고 후 나타난 변화도 주목된다. 친박계 모임으로 최근 '무계파'를 선언한 여의포럼에는 친이계 정두

연·주호영 의원이 새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가입 의사를 표시한 데 이어 친이계 2~3명이 더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두 계파가 벽을 허물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계파 간 충돌을 의식적으로 비켜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겉으로는 화합 행보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불신이 강해서 벽을 허물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특히 차기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친이-친박 주자 간 경쟁이 본격화되면 계파간 대립이 재현되거나 경우에 따라 정면충돌도 치달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속도내는 박근혜... 대권 광폭 행보?

공청회 참석 등 활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외부와의 접촉면을 넓혀 연일 활발한 행보를 보여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대형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 하위법령 제정 방안 연구 공청회에 참석했다.

제대형법은 박 전 대표가 지난 해 6월 복지위에서 활동할 당시 발의한 제2호 제정법으로, 신생아의 제대형(태중혈액)에서 나오는 조

혈세포를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 참석은 최근 박 전 대표가 보인 활발한 대외행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전날에는 2년 만에 당내 여성의원들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친이(친이명박) 직계 의원 3명 등과 오찬을 함께 했고, 지난 8일에는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관에서 열린 '과학대통령 박정희와 리더십'

출판기념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이후에도 당내 의원들과 식사모임이나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정책관련 행사에 참석하면서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전날 여성의원들과 오찬 자리에서도 "의원들간 만남은 일상적"이라고 말해 앞으로 소속 의원들과의 활발한 '소통행보'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박지원 무책임 발언 사과하라"

한나라당은 15일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가 청와대로부터 '비공개 도덕성 검증청문회'를 제안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포화를 퍼부었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의혹을 제로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폄하함으로써 민심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이런 정치적 기교나 전술이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 원내대표가) 오늘 공청한 사회에 대해 '대통령부터 하라'고 말하는 것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라며 "대기업에서 1억원씩 받고 훔쳐타고 다니던 때가 언젠데, 너무 손바닥 내다가 덜컥 수를 둘 수 있다"

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의 평을 내고 "박 원내대표는 자신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사죄하고, 국민 앞에 공당의 대표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의 공격이 거세지자 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당청에서 어제부터 험하게 질 공격개시, 드디어 오늘은 덜컥 운운, 제가 입을 닫아야 하나요? 야당대표는 순종해야 하나요?"라고 글을 올렸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청와대가 오만한 태도로 야당대표를 비난하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며 가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4대강 예산 전용 추궁 국회 예결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4대강 예산 전용 등을 추궁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은 "4대강 예산은 수차례 전용을 한 정부가 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장학금 지원 예산의 전용은 불허했다"면서 "친서민 정책을 표방한다는 정부가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민주당 동당 강기갑 의원은 "2009년 기준 하청정치 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증액하는 것처럼 추경예산에 반영해놓고 이를 멋대로 4대강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으로 전용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빅3 "내가 1등" 기싸움

자체 여론조사 앞세워 대세론 확산 시도

민주당의 10.3 전당대회에 나선 정세균, 손학규 전 대표와 정동영 상임고문 등 이른바 '빅3' 진영이 저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으며 기선잡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자체 대의원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대세론 확산을 시도하는 것이다.

정 전 대표 측은 15일 정 전 대표가 19.8%의 지지율로 손 전 대표(19.2%)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린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 조사는 지난 11일 실시된 것이었으나 표본오차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손 전 대표 측은 "지난 12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포인트) 결과 손 전 대표가 26.9%의 지지율로 우위를 지킨 가운데 정 고문(21.0%), 정 전 대표(17.3%) 등이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호남에서 손 전 대표가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정 고문 측은 "지난 11일 진행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96%포인트)에서 정 고문이 27.7%로 1위를 차지했고 손 전 대표(26.3%), 정 전 대표(22.9%)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등 전세가 역전됐다"고 여론전에 동참했다.

하지만, 일부 여론조사 응답률이 저

조한데다 질문 문항과 여론조사에 응한 대의원 성향에 따라 조사 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날 수 있어 신뢰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지난 11일과 12일 전국 남녀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당 대표 지지율은 손학규 전 대표(24.1%), 정동영 상임고문(15.5%), 정세균 대표(7.4%) 순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는 손학규(37.1%) 정동영(21.2%) 정세균(5.3%) 순이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ww.dreamkorea.biz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드림방수의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습윤상태에서도 방수를 할 수 있다.
- 기술이 필요없다. • 미끄러짐 방지기능을 한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옥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경제적이다. • 특히 인공 신기술 공법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방수제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 옥상 • 외벽 • 지하실 • 공장바닥 • 주차장
- 흙집 • 물탱크 • 양어장 • 수영장 • 기와집
- 화장실 타일 • 비가 오면 축축하게 냄새 나는 집
-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생 산 취 급 품 목	DK 301	강력 전착도막 방수제
	DK 302	농가용 친환경 방수제
	DK 303	농가용 친환경 방수제
	DK 305	부채형 도막 방수제
	DK 306	발크림 수용성 투명방수제
	DK 307	천공형 방수제
	DK 3000	수용성 드림폴 플러
	DK 1000	드림폴

신제품 물막 부어 사용하듯 - 강력전착자동수평막재 DK-1000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공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혼동하여 판매 및 사용하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인증 품질보증업체 입니다.

D 드림코리아 DREAM KOREA

광주·전남 대리점

광안구 062)941-3266 북구 062)433-2225 여수 061)662-3002
남구 062)430-5777 순천 061)746-5556 해남 061)532-9789
서구 062)372-7704 나주 061)333-7789
동구 062)234-6698 목포 061)242-2220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절만하면 100% 원정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시공상당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받지 않습니다.

www.chilman.co.kr

광주(062) 서구 352-7788 북구 512-7998 남구 676-7719

전남(061) 목포(삼화) 274-5987 순천 744-8605 목포(건영) 243-7463 여수 654-7755

(주)칠만방수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